

야 “윤·한, 재난 현장서 정치쇼” vs 여 “정치공세”

〈윤석열〉 〈한동훈〉

서천 화재현장 방문 놓고 설전... 여 “야, 억지주장에만 열 올려” 야, 당정 갈등 수습에 재난 이용 비판... 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

여야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해 당정 갈등 수습에 나선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재난 현장에서 절규하는 국민을 배경으로 한 ‘불합쇼’였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 촉발 요소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며 김 여사 추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재난 현장을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의한 화해 현장으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하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뒤 한 위원장에게 “쌍특검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라”고 했다.

정경래 최고위원은 “화재 현장 상인들은 전 재산을 잃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는데 꼭 그 처참한 무대에서 불합쇼 한 것을 찍어야 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디올 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 “김건희 디올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만이 디올 백 전쟁의 종전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재난 현장을 권력 투쟁의 현장으로 둔갑시키고 비통한 화재 현장을 김건희 명품백으로 촉발된 대통령실 당무 개입 수습을 위한 한동훈 진압 쇼의 뒷배경으로 전락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그것이 과연 쇼였는지, 아니면 진정한 봉합이었는지 헷갈리 판단하

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김 여사 명품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조치와 행동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국민들이 이를 소로 볼지 진정한 봉합으로 볼지 판가를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는 이날 서영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고통 앞에 하던 정쟁도 멈추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정쟁의 불씨를 키우고만 있다”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쇼” 운운하며 마구잡이식 비난과 트집에만 몰두하더니,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 대책마련을 위한 건설적 논의보다 온갖 영상과 사진을 동원해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며 “실의에 빠진 상인들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유근기 “농민 대설피해 현실적 보상 필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예비후보

유근기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예비후보는 대선경보가 내려진 곡성을 찾아 농가를 살피고 농민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전남 농어민들은 겨울철 대설에 익숙하지 않으니 관계기관이 신속히 대응하면서 피해 발생 시 농민 입장에서 현실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후보는 전남도의회의원, 재선 곡성군수 등을 지낸 유 후보는 최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진숙 “청소년 기본소득 지원 근거법 마련”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북구를 출마를 선언한 전진숙 예비후보는 24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등 가구단위 복지에 소외된 대상을 포괄해 기본소득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첫 공약으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새해 핵심 의제로 제시한 ‘기본사회’ 바탕의 공약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의원 시절과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본사회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청소년 기본소득 지급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가구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고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고 재정 마련을 위해 재정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청소년 드림카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영미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 11대 공약 추진”

담양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

김영미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며 ‘11대 공약’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고사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머지않아 공멸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연계·협력과 개방으로 광주와 전남 인근 사군,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와와의 협력을 통해 초광역 경제권을 완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히 양보하는 지역 간 상생의 협치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언급한 뒤 “지방 메가시티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주거단지 확충과 같은 공간 계획 사무의 범위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집중도를 심화시키는 정부를 상대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성·청년 국회의원으로 적극 역할해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숭실대학교 현장간담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대학생 공약노트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급한불 껐지만 ‘명품백’ 불씨 여전

한동훈 “김여사 리스크 입장 변함 없다”... 김경울 해임도 선 그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동행으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관설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내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갈등 해소와 확산 자제를 위해 물밑 중재에 나섰다 후문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봉합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많다. 갈등의 본질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달라지지 않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입장이 변했느냐’고 묻자 “내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해법으로 ‘국민 눈

높이’를 강조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며 갈등의 시작점이 됐다고 자목받는 김경울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출구 전략’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몰카 공작’이라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피해자’인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개발부지 매매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 | |
|------|-------------------|
| 매매금액 | 720억 |
| 대지면적 | 66,773㎡ (20,198평) |
| 연면적 | 33,730㎡ (10,203평)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업 오피스 010-4484-8110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